

유란시아서

<< [제 83 편](#) | [부분](#) | [내용](#) | [제 85 편](#) >>

제 84 편

결혼과 가족 생활

84:0.1 (931.1) 물질적 필요가 결혼의 기초를 세웠고, 성욕은 결혼을 아름답게 꾸몄으며, 종교는 결혼을 인가하고 찬양하였고, 국가는 결혼을 요구하고 규제하였다. 한편 후일에, 진화되는 사랑은 문명의 가장 유익하고 숭고한 제도인 가정을 낳고 창조하는 것으로서 결혼을 비로소 정당화하고 영화롭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교육하는 노력의 중심이요 본질이 되어야 한다.

84:0.2 (931.2) 짝짓기는 정도가 다른 자아 만족과 결부되어, 순전히 자아를 존속시키는 행위이다. 결혼, 곧 가정을 만드는 것은 대체로 자아를 유지하는 문제이며, 사회가 진화함을 뜻한다. 사회 그 자체는 가족 단위가 집합되어 생긴 구조이다. 개인들은 행성의 요인으로서 아주 일시적이다 — 오로지 가족이 사회의 진화에서 계속하는 매체이다. 가족은 문화와 지식이 대량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흐르는 경로이다.

84:0.3 (931.3) 기본적으로, 가정은 사회학적 제도이다. 결혼은 자아 유지에 협동하고 자아 영속에 협력하는 데서 생겨났으며, 자아 충족의 요소는 대체로 부수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가정은 인간의 존재에서

모두 세 가지 기본 활동을 포함하며, 한편 생명을 퍼뜨리는 것은 가정을 근본적 인간 제도로 만들고, 성(性)은 가정과 모든 다른 사회 활동을 분리한다.

1. 원시적 부부 결합

84:1.1 (931.4) 결혼은 성관계에 기초를 두지 않았고, 성관계는 결혼에 따르는 것이었다. 결혼은 원시의 남자에게 필요하지 않았고,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자신을 번거롭게 만들지 않고서 마음대로 성욕을 채웠다.

84:1.2 (931.5) 여자는 자식에게 육체와 감정으로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와 협동하는 데 의존했고, 이것은 여자를 결혼의 보호하는 울타리 속으로 떠민다. 그러나 아무런 생물학적 직접 욕구도 남자를 — 결혼에 붙잡아 두기는커녕 — 결혼으로 이끌지 않았다. 남자로 하여금 결혼에 이끌리게 만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고픔이었고, 배가 고파서 처음에 야만스러운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의 아이들과 나누어 쓰는 원시 오두막으로 이끌렸다.

84:1.3 (931.6) 결혼은 성관계에 따른 의무를 의식하여 깨달음으로 생기지도 않았다. 원시인은 성의 즐거움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때는 처녀가 아이를 뱉 수 있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믿었다. 야만인은 일찍부터 아기들이 영(靈)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다. 임신은 영, 곧 진화하는 귀신이 여자에게 들어간 결과라고 믿었다. 식품과 악한 눈도

또한 처녀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고, 한편 후일의 관념은 생명의 시작을 숨과 햇빛에 연결시켰다.

84:1.4 (932.1) 초기의 많은 민족은 귀신을 바다와 결부시켰다. 따라서 처녀들은 목욕하는 관습에 크게 제한을 받았다. 젊은 여자들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밀물이 있을 때 바다에서 몸 적시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했다. 기형(奇形)이거나 조산(早産)으로 생긴 아기들은 부주의한 목욕이나 악령의 행위를 통해서, 여자의 몸으로 들어간 동물의 새끼라고 여겼다. 물론 야만인은 그런 자식이 태어날 때 목 졸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84:1.5 (932.2) 계몽의 첫 단계는 성관계가 임신하게 하는 귀신이 여자에게 들어가는 길을 연다는 관념과 함께 다가왔다. 그 뒤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시작하는 살아 있는 유전 인자(因子)를 똑같이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20세기에든, 많은 부모가 아직도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아이들을 얼마큼 무지한 가운데 두려고 애쓴다.

84:1.6 (932.3) 생식(生殖)의 기능에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따른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단순한 종류의 가족이 보장되었다. 어머니 사랑은 본능이며, 결혼처럼 도덕 관습에서 생기지 않았다. 모든 포유동물의 어머니 사랑은 지역 우주의 보조 지성 영들에게서 본래부터 받은 자질이며, 그 강도와 헌신은 반드시 그 종(種)의 무력한 유아가 얼마나 긴가에 따라 정비례한다.

84:1.7 (932.4)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강하고, 본능이며, 따라서 원시 여인들로 하여금 많은 이상한 조건을 참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견디도록 강제한 관계이다. 어쩔 수 없는 이 어머니 사랑은 남자와 벌이는 모든 싸움에서 언제나 여자를 아주 엄청나게 불리한

자리에 몰아넣은, 장애가 되는 감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종(種)에서 모성 본능은 지배하지 않는다. 포부 · 이기심, 종교적 확신으로 꺾일 수도 있다.

84:1.8 (932.5)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결혼도 가정도 아니지만, 그 핵심에서 이 두 가지가 솟아나왔다. 이 일시적 협동 관계가 그 결과로 생긴 자손을 기를 만큼 오래 갔을 때 짝짓기의 진화에서 큰 발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84:1.9 (932.6) 이 초기 부부들의 적대 감정과 상관없이, 그 결합이 허술했어도 살아남을 확률은 이 남녀의 협동 관계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협동하는 남자와 여자는, 가족과 자손을 제쳐 놓더라도, 두 남자나 두 여자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엄청나게 우수하다. 남녀가 이렇게 짝짓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아남게 하였고, 인간 사회의 바로 그 시작이었다. 남녀가 따로 노동을 분화하는 것은 또한 편안에 도움이 되고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2. 옛날의 모계 가족

84:2.1 (932.7) 여자가 정기적으로 피 흘리고 출산할 때 피를 더 잃는 것은 일찍부터 피가 아이를 창조한다는 (아니 혼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암시했고, 인간 관계에서 혈연의 개념을 낳았다. 옛 시절에 모든 후손은 여자의 핏줄로 계산하였고, 이것이 상속에서 조금이라도 확실한, 유일한 부분이었다.

84:2.2 (932.8) 어머니와 아이의 혈연 관계, 본능적이고 생물학적 관계에서 생겨났으므로, 원시의 가족은 불가피하게 모계 가족이었다. 그리고 많은 부족이 이 배치를 오랫동안 지켰다. 모계 가족은 무리에서

집단으로 결혼하는 단계로부터, 일부다처 및 일부일처인 부계 가족의 생활, 후일의 개선된 가정 생활로 넘어가는 유일하게 가능한 과도기였다. 모계 가족은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이었다. 부계 가족은 사회·경제·정치적인 것이었다. 북 **아메리카** 홍인들 사이에서 모계 가족이 지속된 것은, 어쩌서 다른 면에서 진취적인 **이로쿼이인**이 결코 진짜 국가가 되지 못했는가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84:2.3 (933.1) 모계 가족의 관습 밑에서 아내의 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최고의 권한을 누렸다. 아내의 형제와 조카들조차 가족을 감독하는 데 남편보다 더 분주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흔히 제 자식들을 따라서 다시 지었다.

84:2.4 (933.2) 아주 초기의 종족들은 아버지에게 공을 거의 돌리지 않았고, 아이가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그들은 접촉하는 결과로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또는 어머니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아이들이 “표시되었다”고 믿었다. 나중에는 모계 가족에서 부계(父系) 가족으로 넘어가는 때가 다가왔을 때, 아이를 낳은 공을 아버지가 온전히 가졌으며, 임신한 여자에 대한 많은 금기(禁忌)는 나중에 그 남편을 포함하도록 연장되었다. 아이를 기대하는 아버지는 해산할 때가 가까워오자 일을 그만두었고, 아이가 태어날 때 침대로 가서 아내와 함께 3일에서 8일까지 남아서 쉬었다. 아내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고된 일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축하를 받으려고, 침대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모두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확립하려고 고안된 옛 관습의 일부였다.

84:2.5 (933.3) 처음에는 남자가 아내의 종족에게 가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후일에는 남자가 신부 값을 치르거나 이를 위해 일한 뒤에,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종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모계 가족에서 부계 가족으로 넘어간 것은, 달리 의미가 없는데 어째서 어떤 종류의 사촌 결혼을 금지하고, 한편 똑같은 인척 관계에 있는 다른 것은 인정되었는가를 설명한다.

84:2.6 (933.4) 사냥꾼의 풍습이 지나가고, 남자가 짐승을 길러 주요한 식량 공급을 좌우하게 되었을 때, 모계 가족은 재빨리 끝에 이르렀다. 모계 가족은 다만 새로 생긴 부계 가족과 경쟁하는 데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어머니의 남자 친척들에게 투입된 권력은 남편이자 아버지에게 집중된 권력과 경쟁할 수 없었다. 여자는 아이를 배고, 계속된 권한과 늘어나는 집안의 권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 과제에 힘이 부치었다. 새로 등장하는 아내 흠치기와 나중에 아내 사들이기는 모계 가족의 종말을 재촉하였다.

84:2.7 (933.5) 모계 가족에서 부계 가족으로 넘어가는 굉장한 변화는 인류가 일찍이 일으킨 가장 급진적이고,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조정 중에 하나였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대번에 사회적 표현이 늘어나고 가족을 이루는 모험이 증가하였다.

3. 아버지의 지배 하에 있는 가족

84:3.1 (933.6) 모성 본능이 여자를 결혼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여자를 결혼한 채로 남아 있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한 것은, 관습의 영향과 함께 남자의 우수한 힘이었다. 전원 생활은 새로운 체계의 관습, 부계 종류의 가족 생활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었다. 짐승을 기르고 초기에 농사 짓는 관습 하에서, 가족 단결의 기초는 아버지의 권한, 도전 받지 않고 멋대로 하는 권한이었다. 모든 사회는, 국가이든 가족이든, 족장 계급이 독재 권한을 갖는 단계를 거쳤다.

84:3.2 (934.1) 구약(舊約) 시대에 여성에게 인색하게 예의를 보인 것은 목자들의 도덕 관습을 참되게 반영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하는 말이 증언하다시피, **히브리** 족장들은 모두 목자였다.

84:3.3 (934.2) 그러나 지난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낮추어 보는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하여 남자는 바로 그 여자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여자는 비상시에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시대에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여자는 눈부신 영웅도 위기의 영웅도 아니었다. 생존 투쟁에서 아이를 밴 것은 뚜렷한 불구였고, 모성애는 부족을 방어할 때 여자에게 장애물이 되었다.

84:3.4 (934.3) 원시의 여자들은 또한 남자가 싸우기 좋아하고 사내다운 것을 찬미하고 갈채를 보냄으로 뜻하지 않게 남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길렀다. 무사(武士)를 이렇게 추켜세운 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높였고, 한편 여자의 자존심을 그만큼 억누르고 여자로 하여금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 군복은 아직도 여성의 감정을 힘차게 뒤흔든다.

84:3.5 (934.4) 진보한 축에 속하는 민족들 사이에서, 여자는 남자처럼 크거나 힘세지 않다. 여자는 약자이니까, 따라서 더 요령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자는 일찍부터 성적 매력을 파는 것을 배웠다. 여자는 남자보다 생각이 깊지 않았지만, 더 민첩하고 보수적이었다. 남자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냥할 때, 여자의 상관이었다. 그러나 집에서 여자는 아주 원시적인 남자들도 보통 술책으로 이겼다.

84:3.6 (934.5) 목자는 먹을거리를 자기의 짐승 떼에서 찾았지만, 이 전원 시대를 통하여 내내, 여자는 아직도 먹을 채소를 마련해야 했다. 원시의 남자는 흙을 피했다. 흙은 너무나 평화롭고 모험하는 재미가 너무 없었다. 또한 여자가 채소를 더 잘 가꿀 수 있다는 오래 된 미신이 있었는데, 여자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뒤에 처진 많은

부족에서, 남자는 고기를, 여자는 채소를 요리하며, **오스트랄리아**의 원시 부족들이 행진할 때 여자들은 결코 사냥거리를 잡지 않고, 한편 남자는 뿌리 하나 캐려고 몸을 굽히려 하지 않는다.

84:3.7 (934.6) 여자는 언제나 일해야 했다. 적어도 바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자는 진정한 생산자였다. 남자는 보통 그보다 더 쉬운 길을 택했고, 이 불평등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존재하였다. 여자는 언제나 짐꾼이었고, 가족 재산을 나르고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이렇게 싸움이나 사냥을 하도록 남자를 자유롭게 버려두었다.

84:3.8 (934.7) 남자가 땅을 경작하는 데 찬성했을 때, 그때까지 여자의 일로 여겨 왔던 것을 하겠다고 찬성했을 때, 여자의 첫 해방이 왔다. 남자 포로가 이제 더 살해되지 않고 농사꾼 노예가 되었을 때가 크게 전진하는 발걸음이었다. 이것이 여자의 해방을 가져왔고, 그래서 여자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더 바칠 수 있었다.

84:3.9 (934.8) 어린것들에게 우유를 마련한 것은 아기들이 더 일찍 젖을 떼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때때로 잠시 불임에서 해방된 어머니들이 아이를 더 낳도록 만들었다. 한편 송아지 젖과 염소 젖의 사용은 아기의 사망률을 크게 줄였다. 사회가 짐승을 기르던 단계 이전에는 아기들이 네다섯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곤 하였다.

84:3.10 (934.9) 원시 전쟁의 감소는 남녀 구별에 근거를 둔 노동 분업 사이의 불균형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여자들은 아직도 진짜 일을 해야 되었고, 한편 남자들은 망보는 임무를 맡았다. 어떤 캠프나 마을도 낮이나 밤에 지키지 않은 채로 버려 둘 수 없었지만, 이 과제조차 개를 길들여 가벼워졌다. 대체로 농업의 시작은 여자의 품위와 사회적 지위를 높였다. 적어도 이것은 바로 남자가 농부로 전향할 때까지 참말이었다. 그리고 남자가 땅을 가는 일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농사짓는 방법의 큰 개선이 뒤따랐고, 이것은 뒤잇는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 연장되었다. 사냥과 전쟁이 있을 때 남자는 조직이 귀중함을 배웠고 이 기술을 산업에 들여왔으며, 나중에 여자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을 물려받았을 때 여자의 허술한 노동 방법을 크게 개량했다.

4. 옛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

84:4.1 (935.1)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시대에도 여자의 지위는, 하나의 사회 제도로써 결혼이 얼마나 진화로 진보했는가를 재는 공평한 평가 기준이다. 한편 결혼 자체의 진보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기록하는 상당히 정확한 척도이다.

84:4.2 (935.2) 여자의 지위는 언제나 사회의 역설(逆說)이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를 민첩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더 강한 성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승진을 위하여 이용했다. 남자에게 비참한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조차, 여자는 자기의 성적 매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흔히 남자를 지배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84:4.3 (935.3) 옛날의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나 연인, 애인이나 협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 덩이의 재산, 하녀나 종이였고, 나중에는 경제적 협동자요, 노리개요, 아이 낳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적당하고 흐뭇한 성관계에는 반드시 여자가 선택하고 협동하는 요소가 들어갔고, 이것은 언제나 영리한 여자들에게, 여성으로서 그들의 사회 지위에 상관없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지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들의 속박을 가볍게 하려는 노력으로, 여자들이 줄곧 기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남자의 불신과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84:4.4 (935.4)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 어려움을 발견했고, 의심하고 경멸하지 않더라도, 무지로 인한 불신과 두려운 환상이 야릇하게 섞인 눈으로 여자를 보았다. 부족과 종족의 많은 전통은 고난(苦難)을 **이브나 판도라**, 또는 어떤 다른 여성 대표의 탓으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왜곡되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악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모두가 한때 여자를 보편적으로 불신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독신 사제직을 지지하면서 늘어놓은 여러 이유 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여자의 천함이었다. 마법사라고 생각된 대부분의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은 여성의 오래 된 평판을 더 좋게 만들지 않았다.

84:4.5 (935.5) 남자는 오랫동안 여자가 특이하다, 아니 비정상이라고 여겼다. 남자는 여자가 혼이 없다고 믿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자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옛날에는 여자와 처음 성관계 가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따라서 사제가 처녀와 첫 성교를 가지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여자의 그림자조차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다.

84:4.6 (935.6) 임신은 한때 일반적으로 여자를 위험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러 부족의 관습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어머니가 긴 정화(淨化) 의식을 거쳐야 한다고 선포했다. 해산하는 자리에 남편이 참여한 집단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출산을 앞둔 어머니를 피하고 혼자 버려두었다.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조차 피했다. 마침내, 늙은 여자들이 진통 중에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 관습이 산파라는 직업을 낳았다. 분만을 쉽게 하려는 노력으로, 출산 중에 몇십 가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행하였다. 귀신의 방해를 막으려고 갓난아이에게 거룩한 물을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84:4.7 (935.7) 혼합되지 않은 부족들 사이에서 출산은 비교적 쉬웠고, 겨우 두세 시간 걸렸다. 혼합된 민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드물다. 여자가 출산할 때 죽으면, 특히 쌍둥이를 낳을 때, 그 여자는 영과 간통한 죄가 있다고 믿었다. 나중에, 상급 부족들은 출산할 때 죽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한 어머니들은 고귀한 이유로 죽었다고 간주되었다.

84:4.8 (936.1) 여자의 옷과 몸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이른바 여자의 정숙(貞淑)은 월경이 있을 때 눈에 뜨일까 하는 지독한 두려움에서 생겨났다. 그렇게 들키는 것은 중대한 죄였고, 금기를 어기는 것이었다. 옛날의 관습 밑에서, 사춘기에서 출산기의 끝까지, 모든 여자는 한 달에 한 주를 꼭 채워, 완전히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여자가 만지거나 앉거나 베고 누울 만한 모든 것은 “더러워졌다.” 달마다 월경이 끝난 뒤에 악령을 몸에서 몰아내려는 노력으로 소녀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이었다. 그러나 한 여자가 출산기를 지났을 때, 그 여자는 보통 더 배려하는 대우를 받았고, 더 많은 권리와 특권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보건대, 여자들이 업신여김을 받은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리스인조차 월경하는 여자를 몸을 더럽히는 3대 원인의 하나로 보았고, 나머지는 돼지고기와 마늘이었다.

84:4.9 (936.2) 아무리 어리석었어도 이 옛 개념들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 개념들이 과로한 여인들에게, 적어도 젊었을 때, 반가운 휴식과 유익한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한 달에 한 주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나머지 시간에 남자 동료들을 다룰 지혜를 익힐 수 있었다. 여자를 이렇게 격리한 것은 또한 남자들을 지나친 성욕의

탐닉으로부터 보호했고, 이렇게 함으로 인구를 제한하고 자제를 향상하는 데 간접으로 기여했다.

84:4.10 (936.3) 남자가 마음대로 제 아내를 죽일 권리를 빼앗겼을 때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 선물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한 걸음 전진이었다. 후일에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처분까지 하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여자는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공직(公職)을 가질 권리를 오랫동안 빼앗겼다. 여자는 **그리스도** 이후 20세기까지, 그리고 이 세기에, 언제나 얼마큼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 밑에서 은둔하던 상태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자유를 널리 얻지 못했다. 진보된 민족들 사이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남자가 우수함을 말없이 주장하는 것이었다.

84:4.11 (936.4) 그러나 원시의 여자들은 최근에 자유롭게 된 자매들이 곤잘 하듯,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하였다. 더 낫거나 다른 형태의 존재를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5. 발전하는 도덕 관습 하에서 여자의 지위

84:5.1 (936.5) 자아를 존속시키는 일에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만, 자아를 유지하는 협동 관계에서 여자는 뚜렷이 불리하게 수고한다. 강제된 이 모성(母性)의 장애는 오로지, 진보하는 문명의 깨우친 관습으로, 그리고 남자가 늘어나는 공평 감각을 얻음으로써 겨우 보상할 수 있다.

84:5.2 (936.6)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서 성의 기준은 여자들 사이에서 더 높아졌는데, 이는 성 관습을 위반한 결과로부터 그들이 더 고통 받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성 기준은 문명이 요구하는 그 순전한 공평 감각의 결과로서 겨우 뒤늦게 개선되고 있다. 자연은 도무지 공평을 모른다 — 여자 혼자서 분만의 아픔을 견디게 만든다.

84:5.3 (936.7) 현대의 남녀 평등 관념은 아름답고, 확장하는 문명에 어울리지만, 그 관념은 자연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힘이 정의일 때, 남자는 여자에게 거만하게 군다. 정의 · 평화 · 공평이 더 많이 지배할 때, 여자는 차츰차츰 노예 상태와 낮은 신분에서 솟아나온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대체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도, 군사주의의 정도에 반비례하여 변하였다.

84:5.4 (937.1)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권리를 의식하여, 또는 일부러 빼앗지는 않았고, 다음에 차츰차츰, 투덜거리면서 그 권리를 여자에게 돌려주었다. 이 모두가 사회의 진화에서 의식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늘어난 권리를 즐길 때가 정말로 왔을 때, 여자는 권리를 가졌고, 남자의 의식하는 태도와 아주 상관없이 모두 가졌다. 사회적 조정은 문명의 지속하는 진화의 일부이며, 이를 마련하려고 도덕 관습은 느리지만 확실히 변한다. 진보하는 도덕 관습은 천천히 갈수록 더 여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다. 여자에게 계속 모질었던 부족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84:5.5 (937.2) **아담** 족속과 **노트** 족속은 여자를 더 많이 인정했으며, 이주하는 **안드** 족속에게 영향을 받은 무리들은 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관하여 **에덴**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84:5.6 (937.3) 초기의 중국인과 **그리스**인은 둘러싼 대부분의 민족들보다 여자를 더 낮게 대우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지나치게

여자를 불신했다. 서양에서 여자는 기독교에 달라붙게 된 **바울**의 교리 밑에서, 가파른 오르막길에 부딪혔다. 그래도 기독교는 남자에게 더 엄격한 성의 책임을 지움으로 도덕 관습을 진보시켰다. 여자의 신분은 **마호메트**교에서 여자에게 따르는 특이한 지위의 하락으로 거의 희망이 없으며, 다른 몇 가지 동양 종교의 가르침 밑에서 여자는 더군다나 운이 나쁘다.

84:5.7 (937.4)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 여자를 정말로 해방했다. 집의 울타리로부터 여자를 대체로 자유롭게 풀어 놓은 것은 현대의 공장 (工場)이었다. 새로운 유지 장치에서 남자의 신체적 능력은 이제 더 중대한 필수 요소가 되지 않았다. 과학은 남자의 힘이 여자의 힘보다 이제 더 아주 우수하지 않도록 생활 조건을 변화시켰다.

84:5.8 (937.5) 이러한 변화는 집안의 노예 신세로부터 여자를 해방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자의 지위를 크게 수정해서, 여자는 실질적으로 남자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성교의 결정권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한때 여자의 가치는 여자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능력에 있었으나, 발명과 부(富)는 여자로 하여금 활동해야 할 새로운 세계 — 품위와 매력의 분야 — 를 창조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산업은 여자의 사회·경제적 해방을 위하여, 의식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또 다시 진화는 계시조차 이룩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데 성공했다.

84:5.9 (937.6)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를 규제하는 불공평한 도덕 관습에서 벗어난 깨우친 민족들의 극단적 반응은 정말로 추와 같았다. 산업화된 민족들 사이에서 여자는 거의 모든 권한을 받았고, 군대 복무와 같은 많은 의무에서 면제된다. 존재를 위한 싸움이 완화될 때마다 여자의 해방에 도움이 되었고, 일부일처제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자는 직접 이득을 보았다. 사회가 진취적으로 진화하면서 관습이 조정될 때마다, 약한 자는 언제나 훨씬 더 이득을 본다.

84:5.10 (937.7) 부부 결혼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여자는 마침내 인정(認定)・위엄・독립・평등・교육을 얻어냈다. 그러나 여자가 새롭고 전례 없는 이 모든 성취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입증될 것인가? 사회의 해방이 가져온 이 위대한 성취에 대하여 현대 여성은 게으름・무관심・불임・간통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날, 20세기에 여자는 오랫동안 세상에 존재하면서 중대한 시험을 거치고 있다!

84:5.11 (938.1) 종족 번식 면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짝이며, 따라서 종족의 진화가 전개되는 데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화는 갈수록 더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는 결코 남자의 권리가 아니다. 남자가 여성의 권리를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권리를 가지고 번성할 수 없다.

84:5.12 (938.2) 남녀는 각자 자신의 뚜렷한 존재 분야가 있고, 그 분야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자가 글자 그대로 남자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싶어 한다면, 머지않아, 동정심도 감정도 없는 경쟁이, 많은 여성이 지금 즐기고, 남자들로부터 아주 최근에 얻어낸, 그 기사도(騎士道) 정신과 특별한 배려를 분명히 없애 버릴 것이다.

84:5.13 (938.3) 문명은 남녀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결코 없애 버릴 수 없다. 대대로 도덕 관습은 변하지만, 본능은 결코 그렇지 않다. 타고난 모성애는 결코 해방된 여자로 하여금 산업에서 남자와 심각하게 경쟁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남녀는 각자 자신의 분야 안에서 힘을 떨칠 터이니, 이것은 생물학적 분화와 정신적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분야이다.

84:5.14 (938.4) 남녀는 각자 언제나 자신의 특별한 분야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 분야들이 때때로 겹칠 것이다. 오직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조건으로 경쟁한다.

6. 남자와 여자의 협동

84:6.1 (938.5) 번식의 욕구는 자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김없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모이게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이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 가정을 세우는 일에 — 함께 남아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84:6.2 (938.6) 성공하는 인간 제도는 모두,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룬 개인 이익의 대립을 용납하며, 가정을 만드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요, 상반되는 협동의 가장 높은 표현이며, 이것은 아주 흔히 천성과 사회가 접촉하는 특징을 가진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짝짓기는 선천적이며, 자연히 일어난다. 그러나 결혼은 생물학상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이다. 정열(情熱)은 남자와 여자가 한데 모일 것을 보장하지만, 그보다 약한 부모 본능과 사회 관습이 그들을 함께 붙들어 놓는다.

84:6.3 (938.7) 남성과 여성은 실지로 보건대, 가깝고 밀접하게 결합된 속에서 사는, 같은 종자의 두 가지 다른 종류이다. 그들의 관점과 전체 인생의 반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서로를 충분히 진정하게 이해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 남녀 사이에 완전히 이해하는 상태는 도달할 수 없다.

84:6.4 (938.8) 여자는 남자보다 직감이 더 좋은 듯하지만, 여자는 또한 얼마큼 논리가 덜한 듯하다. 그러나 여자는 언제나 도덕의 기치를 쥔 사람이요, 인류의 영적 지도자였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아직도 운명과 사귄다.

84:6.5 (938.9)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품 · 반응 · 관점 · 생각의 차이는 걱정을 일으키기는커녕, 개별적으로, 또 집단으로, 인류에게 상당히 유익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많은 계급의 우주 생물은 두 단계로 성격을 표현하도록 지어졌다. 사람, **물질 아들**, 중간자^[86] 중에서, 이 차이는 암컷과 수컷으로 묘사된다. 세라핌, 케루빔, 상물질 동반자 사이에서는, 양성, 즉 적극적인 것, 그리고 음성, 즉 수줍은 것으로 언급되었다. **파라다이스** 및 **하보나** 체계에서 어떤 삼자일체 결합처럼, 그러한 2중 관계는 융통성을 크게 높이고 선천적 한계를 이겨낸다.

84:6.6 (939.1) 남자와 여자는 필사 생애만 아니라 상물질 생애와 영적 생애에 서로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 관점의 차이는 첫 생명을 지나서도, 그리고 지역 우주와 초우주를 올라가면서 내내 지속된다. 그리고 **하보나**에서도, 한때 남자와 여자였던 순례자들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면서 여전히 서로를 도울 것이다. **최후자 군단**에서도, 결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부르는 인격의 성향을 지워 버릴 만큼 사람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인류의 이 두 가지 기본 변종은 줄곧 서로를 골똘히 생각에 빠지게 하고, 자극하고, 북돋아 주고 돕는다. 그들은 난처한 우주 문제들을 푸는 데, 그리고 다채로운 우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언제나 서로 협동할 것이다.

84:6.7 (939.2) 남녀는 결코 서로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랄 수 없어도, 그들은 효과적으로 보완한다. 협동은 얼마큼 개인적으로 대립되지만,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 결혼은 남녀의 차이를 완화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한편 문명을 계속하게 하고 종족의 번식을 보장한다.

84:6.8 (939.3) 결혼은 인간의 모든 제도의 근원이니, 결혼이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유지하는 길로 바로 이끌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회 구조의 기초이다. 가족은 자아 유지 작용과 중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족은 문명의 도덕 관습 밑에서 종족이 영속할 유일한 희망이며, 동시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어떤 형태의 자아 충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련해 준다. 가족은 사람이 이룬 가운데 가장 큰, 순전히 인간다운 업적이며, 남녀의 생물학적 관계의 진화를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관계와 실제로 통합한다.

7. 가족 생활의 이상

84:7.1 (939.4) 남녀가 짝짓는 것은 본능이요,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따라서 가족은 자동으로 존재하게 된다. 종족이나 국가의 가족들이 어떨하면, 그 사회도 마찬가지로이다. 가족들이 좋으면, 사회도 마찬가지로 좋다. **유대** 민족과 중국 민족의 문화가 크게 안정된 것은 그들의 가족 집단의 힘에 달려 있다.

84:7.2 (939.5)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여자의 본능은, 결혼과 원시의 가족 생활을 조장하는 데 여자를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만들도록 작용한다. 남자는 후일의 관습과 사회 풍습의 압력 때문에 가정을 이루도록 강제되었을 뿐이다. 남자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일에 더디게 흥미를 가졌는데, 이는 성행위가 남자에게 아무런 생물학적 결과를 지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84:7.3 (939.6) 성적 연합은 자연스럽지만, 결혼은 사회적인 것이며 반드시 도덕 관습에 규제를 받아왔다. (종교 · 도덕 · 윤리적) 관습은 재산 · 자존심 · 기사도(騎士道)와 함께, 결혼 제도와 가족 제도를 안정시킨다. 관습이 이리저리 변할 때는 언제나, 가정 및 결혼 제도의 안정에 변동이 생긴다. 결혼은 이제 재산 단계를 벗어나서 개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호했고, 여자는 같은 이유로 남자에게 복종했다. 그 장점과 상관없이, 이 체계는 안정을 가져왔다. 지금은 여자를 더 이상 재산으로 여기지 않으며, 결혼 및 가정 제도를 안정시키도록 고안된 새로운 도덕 관습이 솟아나고 있다:

84:7.4 (939.7) 1. 종교의 새 기능 — 부모의 체험이 필수라는 가르침, 우주의 시민을 낳는다는 관념, 자식을 낳는 — 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 특권을 더욱 이해하는 것.

84:7.5 (940.1) 2. 과학의 새 기능 — 출산은 남자의 통제 밑에서, 점점 더 자원하는 것이 된다. 옛 시절에는 아이를 바라는 욕망이 도무지 없는 가운데, 이해의 부족이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장했다.

84:7.6 (940.2) 3. 쾌락 유혹의 새 기능 — 이것은 종족의 생존에 새로운 요인을 시작한다. 옛날 사람은 바라지 않는 아이들을 죽도록 버려두었다. 현대인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84:7.7 (940.3) 4. 부모 본능의 향상. 각 세대는 이제, 부모 본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아이 낳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족 번식의 흐름에서 없애 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다음 세대에 부모가 될 사람들이다.

84:7.8 (940.4) 그러나 하나의 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협동 관계로서, 가정은 더 자세히 말하면 **달라마시아** 시절, 약 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안돈**과 그 직계 후손의 일부일처 관습이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놏** 족속과 나중에 **아담** 족속의 시절 이전에, 가족 생활은 그다지 자랑할 것이 없었다. **아담**과 **이브**는 온 인류에게 오래 가는 영향을 미쳤다.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들이 **동산**에서 나란히 일하는 것이 보였다. 온 가족이 채소 가꾸는 사람이 되는 **에덴**의 이상은 **유란시아**에서 새로운 관념이었다.

84:7.9 (940.5) 초기의 가족은, 노예들과 함께, 관련된 일하는 집단을 포함하였고, 모두가 한 거처에서 살았다. 결혼과 가족 생활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았지만, 필요 때문에 가깝게 관련되었다. 여자는 언제나 개별 가족을 바랐고, 결국 여자는 뜻대로 했다.

84:7.10 (940.6)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보편적이며, 뚜렷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아이의 복지를 위하여 언제나 어머니의 이익을 희생했다. **에스키모**인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목욕시키는 셈으로 제 아기를 훔아 준다. 그러나 원시의 어머니들은, 제 자식들이 아주 어릴 때만 젖을 먹이고 보살폈다. 그들은 동물처럼, 아이들이 자라자마자 내버렸다. 오래 가고 계속되는 인간 관계는 오직 생물학적 사랑에만 기초를 둔 적이 없다. 동물은 제 새끼를 사랑한다. 사람 — 문명화된 사람 — 은 손자 · 손녀를 사랑한다. 문명이 높을수록, 아이들이 승진하고 성공할 때 부모의 기쁨이 더욱 커진다. 이처럼 **이름** 자존심에 대하여 새롭고 더 높은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다.

84:7.11 (940.7) 옛 종족들 사이에서 대가족에 반드시 애정이 깊지는 않았다. 다음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것이 바람직했다:

84:7.12 (940.8) 1. 아이들은 일꾼으로서 값이 있었다.

- 84:7.13 (940.9) 2. 아이들은 노령 보험이었다.
- 84:7.14 (940.10) 3. 딸을 팔 수 있었다.
- 84:7.15 (940.11) 4. 가족의 자부심은 이름 남길 것을 요구한다.
- 84:7.16 (940.12) 5. 아들들은 보호와 방어를 마련해 주었다.
- 84:7.17 (940.13) 6. 귀신 공포증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다.
- 84:7.18 (940.14) 7. 어떤 종교들은 자손을 요구했다.

84:7.19 (940.15) 조상 숭배자는 아들 못 가지는 것을 온 세월과 영원을 통해서 최악의 재난으로 여긴다. 그들은 죽은 뒤의 축제를 거행하고, 영 나라를 통하여 귀신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희생을 바칠 아들들을 무엇보다도 더 바란다.

84:7.20 (941.1) 옛날의 야만인 사이에서, 자식에게 벌주는 것은 아주 일찍 시작되었다.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복종이 실패나 죽음까지도 뜻한다는 것을 아이는 일찍부터 깨달았다. 문명이 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의 자연스런 결과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현대에 사람의 불복종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

84:7.21 (941.2) **에스키모인** 아이들은 징계와 벌이 거의 없이 잘 자라는데, 이것은 그들이 나면서부터 온순한 작은 동물이기 때문이다. 홍인과 황인의 아이들은 거의 똑같이 다루기 쉽다. 그러나 **안드** 족속 유전을 가진 종족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그다지 차별하지 않다. 상상력이 더 많고 모험을 더 좋아하는 이 어린이들은 훈련과 징계가 더 필요하다. 아이를 훈련하는 현대의 문제는 다음 이유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 84:7.22 (941.3) 1. 상당한 정도로 종족이 혼합된 것.
- 84:7.23 (941.4) 2. 인위적이고 겉핥기인 교육.

84:7.24 (941.5) 3. 부모를 모방함으로 아이가 훈련을 얻을 수 없는 것 — 부모가 너무나 자주 가족의 그림에서 빠져 있다.

84:7.25 (941.6) 가족을 징계하는 옛 관념은 생물학적 관념이었고, 부모가 아이의 존재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깨달음에서 생겨났다. 가족 생활에 관한 진보적 이상은, 아이를 세상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떤 부모의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서 최고의 책임이 따른다는 개념으로 이끌고 있다.

84:7.26 (941.7) 문명은 부모가 모든 의무를 맡고, 아이는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간주한다.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자식을 낳는 것이 무슨 의무를 암시하는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투쟁에서 이기도록 아이를 돕는 데서 인자하게 보여주는 보살핌 · 훈련 · 애정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참된 부모는 계속하여 서비스와 봉사를 베푸는 데 몰두하며, 지혜로운 아이는 이를 깨닫고 고맙게 여기게 된다.

84:7.27 (941.8) 현재의 산업 및 도시 시대에, 결혼 제도는 새로운 경제 노선을 따라서 진화하고 있다. 가족 생활은 갈수록 더 비싸게 되었고, 한편 예전에 재산이었던 아이들은 경제적 부채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 자체의 안전은 아직도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질어지는 성향에 달려 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국가나 교회에 떠맡기려는 어떤 시도라도 문명의 복지와 진보에 자살(自殺) 행위임이 입증될 것이다.

84:7.28 (941.9) 아이들과 그 결과로 생기는 가족 생활과 더불어, 결혼은 인간의 성품에서 가장 높은 잠재성을 자극하며, 동시에 필사자의

인격에서 활기를 띤 이 특성을 표현하는 이상적 길을 마련해 준다. 가족은 인간종이 생물학적으로 존속하게 한다. 집은 자연스러운 사회 무대이며, 자라는 아이들은 거기서 핏줄로 이어진 형제 정신의 윤리를 깨달을 수 있다. 가족은 근본적 친교 단위이며, 그 안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참을성 · 이타주의 · 너그러움 · 인내심의 교훈을 배우며, 이것들은 모든 사람 사이에서 형제 정신을 실현하는 데 아주 필요하다.

84:7.29 (941.10) 문명화된 종족들이 더욱 널리 **안드** 족속의 가족 회의 관습으로 돌아간다면, 인간 사회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안드** 족속은 족장이나 독재 형태의 가족 정부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형제답고 친교 성향이 있었고, 가족의 성질을 가진 모든 제안과 규칙을 자유로이 솔직하게 토론하였다. 그들은 가족을 다스리는 모든 일에 이상적으로 형제 정신이 있었다. 이상적 가족 안에서 효도와 부모 사랑은 모두 형제다운 헌신으로 커진다.

84:7.30 (942.1) 가족 생활은 참된 도덕의 선구자요, 의무에 충성하는 의식(意識)의 근거이다. 가족 생활에서 강제된 관계는 다채로운 다른 인물에 대하여 필요한 적응을 강제함을 통해서 인격을 안정시키고 인격의 성장을 자극한다. 그러나 오히려, 참된 가족 — 좋은 가족 — 은 자식을 낳는 부모에게 **창조자**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드러내며, 한편 동시에 그러한 참된 부모는 우주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 **파라다이스** 부모의 사랑을 올라가면서 드러내는, 길게 연속되는 과정의 첫걸음을 제 자식들에게 보여준다.

8. 자아 욕구 충족의 위험

84:8.1 (942.2) 가족 생활의 큰 위협은 위험하게 높아지는, 자아 욕구의 충족, 현대 쾌락광의 물결이다. 결혼으로 이끈 첫째 동기는 예전에 경제 요인이었고, 성적 매력은 2차적인 것이었다. 자아 유지에 기초를 둔 결혼은 자아의 존속으로 이끌었고, 그와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자아 욕구의 충족을 마련해 주었다. 결혼은 살기 위한 세 가지 큰 동기를 모두 포함하는, 인간 사회의 유일한 제도이다.

84:8.2 (942.3) 최초에 재산은 자아를 유지하는 기본 제도였고, 한편 결혼은 자아를 존속시키는 독특한 제도로써 작용했다. 배를 채우는 것과 놀이와 유머는, 이따금 얻는 성욕의 만족과 더불어 자아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기도 했어도, 진화하는 도덕 관습이 자아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뚜렷한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즐거움을 얻는 전문화된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제도는 이 쾌락 추구에 완전히 젖어 있다. 재산의 축적은 온갖 종류의 자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으며, 한편 결혼은 흔히 오직 쾌락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지나친 탐닉, 널리 퍼진 이 쾌락광은, 일찍이 사회의 진화적 가족 생활 제도인 가정을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이다.

84:8.3 (942.4) 보라 인종은 새롭고 겨우 불완전하게 실현된 특징 — 유머 감각과 함께 놀이 본능 — 을 인류의 체험 속에 들여왔다. 이 본능은 어느 만큼 **산식**과 **안돈** 족속 안에 있었지만, **아담**의 핏줄은 이 원시 성향을 가능한 쾌락으로 높였고, 이것은 새롭고 영화롭게 된 형태로 자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배고픔을 달래는 것을 제쳐 놓고, 기본 형태의 자아 욕구의 충족은 성욕을 채우는 것이며, 이 형태의 육체적 쾌락은 **산식**과 **안드** 족속을 혼합함으로써 엄청나게 높아졌다.

84:8.4 (942.5) **안드** 이후 종족들의 차별하지 못한 성질, 호기심 · 모험, 그리고 쾌락에 빠지는 특징이 합친 곳에 진짜 위험이 있다. 혼의

갈증은 육체의 쾌락으로 채울 수 없다. 가정 및 아이 사랑은 쾌락을 지혜롭지 못하게 찾는다고 늘어날 수 없다. 너희는 예술 · 색깔 · 소리 · 리듬 · 음악, 사람 치장의 자원을 다 써 버리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너희는 혼을 높이거나 정신에 영양분 주기를 바랄 수 없다. 허영심과 유행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자존심과 경쟁심은 뒤잇는 세대들의 살아남는 성질을 높일 힘이 없다.

84:8.5 (942.6) 진보하는 하늘 존재들은 모두 휴식을 즐기고 회상(回想) 지도자들의 보살핌을 누린다. 건강에 좋은 기분 전환을 얻고 사람을 격려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모든 노력은 건전하다. 기분을 새롭게 하는 잠 · 휴식 · 오락, 단조로운 지루함을 막는 모든 유흥은 가치가 있다. 경쟁하는 시합, 이야기를 엮는 것, 맛있는 것을 맛보는 것조차 자아 욕구 충족의 형태로서 쓸모가 있을까 한다. (먹을 것을 맛내려고 너희가 소금을 쓸 때, 거의 1백만 년 동안 사람은 먹을 것을 재 속에 집어넣어야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멈추어 생각해 보아라.)

84:8.6 (943.1) 사람은 즐길지어다. 인류는 수많은 방법으로 쾌락을 발견할지어다. 진화하는 인류는 온갖 종류의 정당한 자아 욕구의 충족, 오랫동안 위를 향한 생물학적 투쟁으로 얻는 열매를 탐구할지어다. 사람은 오늘날의 즐거움과 쾌락의 얼마큼은 수고하여 잘 벌었다. 그러나 너희는 운명의 목표를 잘 보아라! 쾌락이 자아 유지의 도구가 된 재산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살이다. 그리고 자아 욕구의 충족이 결혼의 파탄, 가정 생활의 퇴폐, 가정의 파괴를 가져온다면, 치명적인 값을 치른 것이다 — 가정은 사람이 진화로 얻은 최고의 성취이며, 문명이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다.

[86]: ^{84:6.5} 중간자(midsoniter)는 불사도 아니고 필사도 아니며, 신과 인간 중간에 있는 자라는 뜻. 언젠가 **궁극위**로부터 초한성을 받으리라 한다.
